

‘중이의 영웅, 칸의 서사’ 특별전
전남도립미술관 10월 20일까지
날아라 슈퍼보드·각시탈·식객 등
작품·영상물 콘텐츠·자료 전시



여수 출신 허영만 만화가의 특별초대전이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린다. 왼쪽부터 '각시탈', '식객', '날아라
슈퍼보드' 캐릭터.

허영만의 50년 만화 인생 “많이 부지런히 재미있게 그려라”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허영만 만화가가 ‘각시탈’, ‘타짜’, ‘식객’ 등 화제작을 펴낸 만화계의 대가다. 최근에는 TV ‘백반기행’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수 출신 허영만 작가의 50년 만화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초대전이 지역에서 열려 화제다. 반백년이 넘도록 만화인생 외길을 걸어온 허 작가의 삶은 우리나라 현대 만화사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오는 10월 20일까지 특별초대전 ‘중이의 영웅, 칸의 서사’를 펼친다. 6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허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예술의 확장성과 연결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만화가 허영만’, 2부 ‘시대를 품은 만화’, 3부 ‘매스미디어 속 만화’, 4부 ‘일상이 된 만화’로 진행된다. 각각의 전시는 만화사 자료는 물론 주요 작품, 만화가 영상물 콘텐츠, 자료 등을 오롯이 담고 있다.

전시를 앞두고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허 작가는 전시회 소회를 비롯해 작품 배경, 만화를 지망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들려줬다.

먼저 허 작가는 기념전에 대해 “벌써 50주년이다 됐다. 옛것에 환갑을 맞은 것 같았는데 70세가 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념전을 준비하며 자료 등을 훑어보니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백반기행’에서 허 작가는 소탈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그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될 만큼 영상과의 친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 작가는 “처음에는 ‘백반기행’을 6회 정도 촬영한

다고 알고 있었다. 반응이 좋다고 하니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번은 “왜 프로그램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지” 제작진에게 물었다. “연예인처럼 튀지 않고 잔잔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돌아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특별한 비결보다 해왔던 대로 변하지 않는 자세로 그려나가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들을 만나 어느 지역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 물어보면 전부 ‘전라도 음식’이라고 말한다”며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먹었던 터라 ‘식객’을 쓰고 ‘백반기행’을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허 작가의 만화계 데뷔는 1974년 한국일보 신인 만화 공모전에 ‘집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였다. 같은 해 소년한국일보사에 연재한 만화 ‘각시탈’ 흥행으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연이어 발표된 작품들도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만화가로서의 명성이 굳건해진다. 서유기를 재해석한 ‘날아라 슈퍼보드’, ‘비트’, ‘타짜’, ‘식객’ 등은 고전적인 매체인 종이를 넘어 영상 매체로까지 영역이 확장될만큼 인기를 끌었다.

허 작가는 1970~1980년대 사회적 양상, 이슈를 담은 작품을 많이 제작했다. 특히 ‘각시탈’, ‘한강’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 2차 저작물이 많이 생산됐다. 만화 또한 다양한 매체와의 만남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허 작가는 “2차 저작물이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인 것 같다. 만화를 영화로도 제작하고 또한 캐릭터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캐릭터를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만화 영화 캐릭터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 편이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하는 저작물은 강한 편인데 그 외의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은 약한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캐릭터의 구별이 쉽지 않을 만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의 작업 흔적들을 모아 진행되는 만큼 책상은 물론 메모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방대한 자료는 작품에 임하는 자세나 방법과도 연계된다.

그는 “중이를 남장으로 계산하면 만화 한 권은 60장, 100장이 쉽게 넘어간다. 일전에 만화원고를 조사해봤더니 최소한 14만~15만 장이 되더라. 중이이다 보니 부피가 많아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메모를 안 하면 나중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끔씩 메모를 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기록을 하는데, 어찌 됐든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자료 분량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만화가를 지망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는 문하생들에게 해주는 말로 대신했다.

“작은 재주를 갖고 만화를 시작하는데 일단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로 승부가 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대상을 정확하게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변형을 해도 독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많이 그려라 부지런히 그리고 재미있게 그려라’고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짜’ 표지화 앞에서 포즈를 취한 허영만 만화가.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조선대 미대 예비예술인과 작가들 한자리에

오늘 ‘예술공간 집’서 전시회

‘미래’라는 말에는 긍정과 꿈이 깃들여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도 한때는 예비예술인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들에게 과거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예비예술인들과 작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예술공간 집에서 7일까지 진행되는 ‘Start Artist X Start’전.

이번 전시는 조선대 미대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회화과 3, 4학년에 재학 중인 5명의 예술인과 이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로 지목된 예술인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예비예술가는 고예진을 비롯해 김예영, 서창건, 어어나, 임정현, 하늘푸른이 참여했으며 작가는 김철아, 윤준영, 조정태가 멘토로 참여했다.

멘토 예술가들은 창작과 전시활동 등 현장에서의 경

험을 알려주고 예비예술가들은 잠재력을 토대로 향후 전문예술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예영의 ‘휴식의 공간으로’는 현재의 폭풍 찢는 무더위를 잊게 하는 작품이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소파와 싱그러운 산의 모습이 비치는 장면은 보는 이에게 잠시나마 폭염으로 인한 불쾌지수를 잊게 한다.

서창건의 ‘존재’는 확정할 수 없는 또는 단언할 수 없는 희미한 존재의 모습을 구현한 작품이다. 자신의 모습을 잊은 채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내적 불안과 복잡함 등이 드러나 있다. 본래의 모습을 감춘 채 타인의 모습으로, 희미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무력감이 투사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멘토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아트 토크가 진행됐다.

한편 조운성 조대 미대 학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대학과 예술가, 갤러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교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의 예



서창건 작 ‘존재’

비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줄리 브라스 사운드’ 멤버들. 트럼펫 오창훈(왼쪽부터), 튜바 장현성, 호른 오은영, 트럼펫 허민준, 트럼본 홍성혁.
〈줄리 브라스 사운드 제공〉

한여름 무더위 식히는 금관 5중주

‘줄리 브라스 사운드’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줄리 브라스 사운드’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조 금관악기 앙상블이다. 2018년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6년째 정기 연주 및 기획연주회, 영화음악-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지역민들을 만나 왔으며, 클래식, 재즈, 스윙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줄리 브라스 사운드가 ‘제5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칠 예정이다. 금관 5중주뿐만 아니라 오스카 비에의 6중주곡, 난이도 높은 낭만시대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전 세계 금관 연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5중주 곡으로 평가받는 사무엘 사이트의 ‘전쟁 모음곡’으로 막을 여는 공연은 빅토르 에발트의 ‘금관 5중주 1번 B플랫단조, Op.5’로 이어진다.

오스카 비에의 ‘관악을 위한 6중주 E 플랫단조 Op.30’도 울려 퍼진다. 트럼펫 3개와 트롬본 2개, 튜바로 편성된 작품이며 소

나타 형식의 합창 스타일에서부터 슬라브적 악곡, E플랫 장조의 색다른 악센트와 당김음 등이 매력적이다.

끝으로 런던데리의 원곡 ‘아이리시 포크 송’은 잉글랜드의 법조인이자 작사가인 프레데릭 워드리가 가사를 붙여 ‘Danny boy’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인지도를 얻은 곡이다. 한국에서는 ‘아! 목동아’로 현재명이 번안해 발표되면서 알려졌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향 등 객원연주 경험이 있는 트럼페터 김광현이 협연할 예정이다. 현재 비엔노 브라스 및 광주 트럼펫과이어 단원으로 있다.

줄리 브라스 사운드 장현성은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도 높고 쉽게 지치는 계절에 금관악기의 화려함과 청명함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며 “시원한 공연장을 찾아 맑고 웅장한 금관악기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여름특별전 3일 더 만나요

‘우주의 언어’·‘한국미술명작’ 18일까지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에서 진행 중인 ‘우주의 언어’ (제1-2전시실), ‘한국미술명작’ (제3-6전시실)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3일 연장된다.

시립미술관은 오는 15일까지 진행 예정이던 두 전시를 3일간 연장해 18일까지 관객을 맞는다.

지난 6월 5일 개막한 이번 여름특별전은 시립미술관이 야심차게 준비한 블록버스터 전시로 ‘우주’와 ‘명작’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모티브로 지난 시대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다면적으로 조망하자는 취지다.

미술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주말에는 500~600명, 주중에는 400~500명에 이를 만큼 관람객이 50% 이상 증가했다. 전시가 막바지로 가면서 특별전을 보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달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개장 이후로 관람객이 늘었다는 후문이다.

‘우주의 언어-수’전은 수학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수’를 소재로 풀여냈다. 수학을 학문적 접근이 아닌 예술이라는 렌즈로 구현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일상

에서 수학이 지닌 힘을 사유하게 한다.

‘한국미술명작’전은 주요 공립 미술관을 비롯해 문화재단, 가나컬렉션, 이천희컬렉션, 개인컬렉션이 참여했으며 30여 명 작가와 140여 점 작품으로 구성됐다. 20세기 한국미술을 아우르는 기획전답게 구본웅, 권진규, 김기창, 김은호, 김환기, 박수근, 양수아, 오지호, 이성자, 이우환, 이응노, 이인성, 이종섭, 임작순, 장욱진, 천경자, 허백련 등 주요 작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임종영 시립미술관 전시실장은 “여름방학, 학원방학 등과 맞물려 주말에는 평일과 달리 관람객들이 50% 이상 증가했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오디오가이드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